**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교회(8) -나의 전도를 새롭게(창12:1-4) 2/28/2016**

오늘부터 4주간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한다.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전도다. 전도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당연성, 필연성, 절대성이다.

**내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말이다.** 세상에 저주, 재앙, 그 배후의 흑암 세력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 나왔고, 거기서 승리하고, 거기서 증인으로 살다 갈 사람들이다. 문제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. 세상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체험하고, 증거를 얻는 기회다.

**그러면 당연히 따라 오는 것이 뭐겠는가? 현장이 보이고,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다.** 모든 사람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만 나는 답을 가진 자이다. 전에는 나도 같이 고통 당하고 실패 했으나 이제는 증거를 가진 자이다.

당연히 도와 주고 싶다(당연성). 꼭 내 간증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,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내가 행복해진다(필연성). “이것이 전부였구나. 나를 구원하신 이유요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” 라는 결론이 난다. 이 시대의 문제가 보이고, 거기서 살고 죽어야 할 절대적 이유가 보인다. 그것이 선교, 세계복음화다(절대성)

**이것이 성경의 핵이고, 흐름이다.** 그리스도로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얻고(복음), 내 현장을 살리고(전도), 땅끝까지 가지 모든 민족 살리라는 것이다(선교). 이 흐름을 제대로 타면 모든 응답, 축복, 성공, 따라 오는 것이다.

**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이것을 보려고 한다.** 아브라함은 시작의 사람이다. 우상 숭배하던 땅에서 부름 받은 첫 세대다. 우리도 거의 복음 깨달은 첫 세대다. 우리가 누릴 축복이다.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작부터 이 흐름을 타게 만들었다. 갈3:14에 우리가 “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누릴 자”가 되었다고 했다.

**1. 전도 이전에 체험하고 누릴 것이 있다.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그리스도와 그 축복이다.**

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?

**1) 네 본토, 친척,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었다(1절).**

**① “본토, 친척, 아비 집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? 그것이 창11장의 바벨탑의 문화, 우상 숭배의 저주를 말한다.**

 왜, 뭘 “떠나라”는 것인가? 우상 숭배, 전부 귀신 섬기고, 영적 문제 가득한 가문, 지역, 나라의 배경을 말한다.

 한국이 그랬고, 제3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다. 무속, 미신, 점술, 주술로 가득 차 있다. 일본, 대만도 심각하다.

 미국도 드러내놓고 사단 숭배하고, 접신 운동한다. TV에서 죽은 자들과 대화하게 하고, 뉴에이지 매장 가면 싹

 귀신 섬기는 도구들이다. 뉴에이지 영화들은 하나님도 없고, 귀신도 없다. 외계인이고, 동화 속의 요정일 뿐이다

 세상은 우상, 귀신, 흑암으로 덮힐 수 밖에 없다. 영적 문제에 잡혀 마약, 정신문제, 가득할 수 밖에 없다.

**②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은 그 우상 숭배의 가문, 문화,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께 가라는 것이다.**

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범죄한 것처럼 범죄하고, 실패하고, 무너졌어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순간 모든 죄,

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.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(고후5:17). 이 답을 내가 붙잡고, 세상에 주라는 것이다.

**2)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축복이 어느 정도냐?**

**① 2절에 “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,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”고 했다.**

 나도 모르는 저주와 운명에 빠져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로 근원이 바뀐 것이다(엡1:3-5)

**② 3절에 “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,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”고 했다.**

 나를 계속 실패하게 하고, 저주하게 하는 자가 있다. 그것이 사단이다.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, 살인한 자요, 거짓의 아비라고 했다(요8:44). 다 여기에 걸려서 무너진다. 사단에게 걸려 든 거다(음란, 폭력, 마약, 도박)

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다(요일3:8). 이제는 내가 그 분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다.

 잠시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(요일4:4, 벧전5:8-9)

**③ 3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는가? “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”고 했다.**

 마침내 일어나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. 이 언약을 붙잡고,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했던 모세도, 배신했던 베드로도, 핍박자였던 바울도,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도 시대를 살리는 일군들이 된 것이다.

 하나님이 이들을 증인으로 세웠고, 가는 곳마다 이들을 통해 살아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.

**2.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전도를 했는가? 아브라함은 인생 전부로 전도한 사람이다.**

**1)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한 전도이다.**

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남에게 전하기 전에 내 것이어야 한다. 그래서 내가 나에게 메시지 할 정도 되어야 한다. 복음을 완전히 각인, 뿌리. 체질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다. 그래서 집중 훈련도 하는 것이다.

 “본토, 친척, 아비 집을 떠나라”고 한 결론이 이것이다. 우리 안에 틀린 것이 오래 각인, 뿌리. 체질되어 있다.

**① 모든 불신앙, 원망, 불평, 다툼 버리고 모든 것을 정말로 감사로 바꾸어 보라. 내 근본이 바뀐 사람이다.**

 나의 생각, 보는 눈, 전부 바꾸라.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밖에 없도록 이제는 생각의 수준, 말의 격, 삶의 그릇이 바뀌도록 계속 도전하는 것이다.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이 3오늘이다(말씀, 기도, 전도 속으로)

**② 다시 실패했다면 또 일어나 더 겸손한 모습으로 새로 시작하라.**

 아브라함도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다(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서, 롯과의 분쟁, 이스마엘의 출생)

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다. 뻔뻔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. 복음은 뻔뻔스러워지라는 것이 아니다.

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, 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(사60:1)

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는가?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절대 순종했다(창22:1-12)

**2) 그가 보여 준 증인의 삶이다(행1:8)**

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그 분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것이다.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증인이 되냐?

**① 일단 아브라함의 종이 그를 인정했다. 자기 며느리를 찾는 일에 종을 보냈다.** 종이 언약이 분명하고,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혜가 있었다(창24장). 누가 키운 제자냐? 이것이 내 직장과 사업에서 체험해야 하는 전도다.

**② 그 지역의 헤브론 족속들도 인정을 했다(창23:6).** 아브라함을 “우리의 주”라고 불렀다. 지교회의 결론이다.

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 지역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다. 흐름이 바뀌고,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.

**3) 그의 후대에게 전달된 전도다(창18:19)**

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?(창26:3, 5, 24). 100배의 축복, 르호봇의 축복이다.

 축복 받은 정도가 아니다.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제자였다(창22장)

**결론-**그리스도, 전도, 선교로 결론 내고, 일심 전심 지속하며 집중해보라. 우리 인생 전부가 전도가 될 것이다.